민족의 호소

1973

민족의 호소

19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1973년 4월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안으로《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첫째 의안에 대한 정무원 총리 김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으며《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의 결정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와《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가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편 집 부

차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 정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조국통일방침과 그를 변천된 정세에 맞게 구체화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에 따라 북과 남사이의 력사적인 대화가 진행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가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는 환경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정무원 총리 김일동지의 보고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념원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가로막고있는 근본요인인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과 북과 남사이의 이미 마련된 대화를 잘 진행할뿐아니라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가하에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대화를 폭넓게 진행하며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이며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3년 4월 6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한 정무원 총리 김일대의원의 보고

대의원동지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이미 한해반동안의 시일이 지나갔으며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도 벌써 아홉달이란 시일이 흘러갔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시작을 거족적인 기쁨속에 맞이하였으며 그에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걸고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또한 조선에서의 대화의 실현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기여로서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4분의 1세기동안이나 격페된 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였다는것은 참으로 하나의 획기적전환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북반부혁명기지를 보다 튼튼히 다지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쳐있으며 평화적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투지와 신심으로 불타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폭압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평화

적통일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습니다.

현시기 국제정세도 그 발전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전반적추이는 제국주의세력의 쇠퇴몰락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력량의 장성강화로 특징지어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비상히 확대강화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제국주의가 날로 무너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있는 오늘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앞길은 물론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을 열기에 이르기까지만 하여도 오랜시일 수많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북과 남사이의 대화과정 역시 순조로운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형편에 있으며 인민들이 기대하는 응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대화는 거듭되고 시간은 적지 않게 흘렀으나 유감스럽게도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실제적결과를 가져온것은 아직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요인은 다름아닌 미국이 남조선을 의연히 강점하고있으면서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진행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며 그앞에 인위적난관을 조성하고있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두개 조선을 만들어냄으로써 언제까지나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얽매두려는데로부터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그를 극력 방해하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전진을 방해하고있는 근본요인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앞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할것을 제기하는바입니다.

대의원동지들!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

일하는것은 우리가 한시도 잊은적이 없는 민족최대의 임무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침들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할것을 주장하여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의 기본방침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입니다.

조국통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내쫓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는 마땅히 민족자결권의 원칙이 견지되여야 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는 자주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정세발전의 매시기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국이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제안을 내놓은것은 무려 130여차례에 이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밑에 우리가 제의한 방안들에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다 밝혀져있습니다. 거

기에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근본문제를 비롯하여 남북련방제, 경제, 문화교류, 군비축소, 사람들의 래왕과 편지거래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방안들은 민족분렬의 비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의 품속에서 함께 살려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으며 또한 분렬로 말미암아 남북간에 조성된 각이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방안들은 남북 전체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려 우리의 자주적통일방안들을 덮어놓고 거부하고 반대하였으며 그 어느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는것을 반대하였을뿐아니라 완전한 통일에 앞서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자는것도 거부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자는것도 반대하였으며 통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어떠한 조치도 다 반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의 통일은 한없이 지연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새롭게 천명하신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은 오래동안 지속된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리정표로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미제가 국내외적으로 더욱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특히 아세아침략정책의 전면적파산으로 그들이 더이상 이 지역에 붙어있기 곤난하게 된 정세발전의 급격한 변동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과 평화통일기운이 그어느때보다도 앙양되고있는 사실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그때까지 남북사이의 모든 접촉을 완강히 거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들도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으로서나마 우리와의 대화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록 좁은 테두리의것이고 또 때늦은 감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선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민족내부문제를 토의하게 된만큼 매우 의의있는 일로 인정하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마련된 대화를 보다 폭넓은 정치협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썼습니다.

그 결과 남북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마침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며 둘째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우리의 제기에 의하여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한 원칙적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정부와 전체 인민이 기울여온 불굴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증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침과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참으로 북과 남의 대화의 실현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서 민족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갈데 대한 우리 민족의 슬기와 능력을 온 세상에 시위한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대한 새로 일어나는 민족자주력량의 승리를 의미하였으며 전쟁정책에 대한 평화애호정책의 승리를 의미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조국통일의 기본원

칙들에 합의를 보았고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된 조건에서 우리는 쌍방간에 합의를 본 조항들을 될수록 빨리 실천에 옮기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정확히 리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독립을 요구하며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고수하며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사조를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자는 자주원칙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야 하며 그밖의 다른 외부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평화통일원칙을 옳게 지키자면 쌍방이 정세를 첨예화시키는 언행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은 쌍방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며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 민족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모든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며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우선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적합작을 실현할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경제분야의 합작으로서 북반부에 풍부히 매장된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남북의 어장을 개방하고 고기잡이를 같이 하며 남반부에서의 관개공사를 공동으로 추진시키는 등 쌍방의 경제적가능성을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합작으로서 민족어

를 통일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우리 나라 력사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풍모를 빛내이며 예술단, 체육단을 교환하고 단일한 민족예술단과 단일한 체육단을 구성하여 대외에도 공동으로 진출할데 대하여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군사적합작을 실현하여 공동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을데 대한 공동방위안과 외교분야에서의 합작을 실현하여 대외활동에서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할데 대하여서도 제의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제안들은 모든 문제를 민족내부문제로서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민족적단합의 실제적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처럼 남북간의 합작을 실현할 때 쌍방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등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풀릴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호상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하여 민족적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대화를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고리로서 남북사이의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쌍방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대결상태와 군비경쟁을 계속하며 긴장상태를 풀지 않는다면 대화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 어려울것이며 설사 일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본다하여도 그 리행에서 난관이 생길것은 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합작이요, 래왕이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빈소리에 그치고 어느때든지 쌍방은 서로 속을 주지 않을것이며 정치적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을것입니다.

오직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풀기 위한 결정적조치를 취함으로써만 모든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고 호상 신뢰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북

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통일도상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북과 남사이의 확고한 신임의 전제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에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우리의 일관한 성의와 진지성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는 급속히 해소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결정적국면이 열릴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을 이룩하는데서 큰 걸음을 내디디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의 군비부담을 덜어주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할것이며 우리 민족의 인적, 물적 자원을 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더 많이 돌릴수 있게 할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할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로부터도 전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도 이미 우리와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합의한것만큼 진짜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념원한다면 우리의 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군비축소에 응하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며 이때까지 싸우던 웰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되는 우리 나라에서 평화

협정을 맺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 모든 제안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할 단계에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과 남사이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원칙상 합의는 보았지만 그의 실현을 방해하는 근원은 의연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집요하게 작용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주는것입니다.

그 근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는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차지하고있는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심화될수록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지배의 마수가 얼마나 뿌리깊이 뻗쳐있으며 그들이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자주적통

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더욱 똑똑히 체험하고있습니다.

대의원동지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다음 우리 앞에 벌어진 모든 사실들은 미제야말로 평화적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이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으며 그곳을 저들의 새형의 식민지로,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국은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를 당하고서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얽어매두기 위하여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일관하게 방해하여왔습니다.

조선에서의 패전이후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국은 최근년간 아세아의 다른 여러곳에서 거듭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더욱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게 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막다른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작은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각개격파전술에서 찾으려고 하며 이른바 《닉슨주의》의 교리에 따라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책동하여왔습니다.

《닉슨주의》의 요구에 따라 조선에서는 남조선의 일부 호전분자들을 내세워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꾀하여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오늘 아세아의 여러곳에서 쫓겨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을 더욱더 아세아침략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인정하고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틀어쥐고있으려고 모든것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겉으로는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하는척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으며 그를 방해하여왔습니다.

미국무성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그 다

음날에 벌써 남북대화가 진행된다 하여도 미국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그냥 둘것이며 《국군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시킬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힘의 립장》에서 우리와의 회담을 진행해야 할것이라는식으로 떠벌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로골적으로 힘의 대결정책에로 추동하려는 미국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언행을 우리 나라 내정문제에 대한 참을수 없는 간섭으로서 또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견결히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자기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물러갈 대신에 우리나라에서의 정세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군비증강과 전쟁준비, 남조선에서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 긴장상태를 지속시키며 무력지원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을 남북대결의 길로 끊임없이 부추겨왔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가 남조선

당국자들로 하여금 우리와의 대화에서 《보다 강력한 립장》에 서게 할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 계속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를 대주고 군사기지들을 확장하며 쉴사이없이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일삼고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미국은 딸라밑천이 바닥이 나서 이른바 《대외원조》문제에서 그처럼 심한 진통을 겪고있으면서도 남조선에 대해서만은 세계의 다른 어느 추종국가들에 준것보다도 몇배나 더 많은 무려 7억8천만딸라라는 방대한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최근에는 윁남침략전쟁에 동원되였던 각종 최신형중무기들과 군사장비들까지도 남조선에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남조선군대와 함께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날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사실입니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지난 2월에도 각종 살인무기들을 끌어내여 우리 나라 서해안일대에서 《유도탄사격훈련》을 벌렸는데 4월초에는 동남해안일대에서 남조선군대와 공동으로 대규모상륙작전훈련을 벌릴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군과 남조선군대가 합동하여 대규모적인 상륙작전훈련을 한다는것은 벌써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것이며 이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고있는 《남침》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부터의 북침의 위협이 우리 나라에서의 현실적전쟁위험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든 심상치 않은 사태발전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아니라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고있는 《힘의 우위》와 《승공통일》론을 뒤받침해주며 그들을 민족적 단합과 합작의 길이 아니라 힘의 대결과 경쟁에로 추동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미국방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년례보고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계속적인 군사적주둔이 《힘의 립장에서 남조선이 북조선과 협상할수 있게 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계속 불가피할것》이라고 공공연

히 떠벌이였습니다.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계속 남아있겠으며 군사적지원을 강화하겠으니 힘의 립장에서 협상하라고 하는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미국정부당국자들의 이러한 로골적인 부추김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규정한 남북공동성명에 전적으로 위반된다는것은 더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은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별로 전진을 보지 못한것이 우연하지 않다는것을 여기에서 똑똑히 찾아볼수 있을것입니다.

바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그들이 돌아가서 하는 행동은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고 미국당국자들의 언행과 일치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였으나 돌아가서는 미군이 외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말그대로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까지도 외세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실증하는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고 하였으나 돌아가서는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말그대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력배양》을 하여야 한다느니, 현대전은 《속전속결》을 요한다느니 하면서 군비경쟁과 전쟁준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돌아가서는 반공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새로운 《법》들에 의하여 더욱 가혹하게 억압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마구 체포, 투옥, 학살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길로, 민족적 대단결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결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군사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아가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껄렁거리고 돌아가서는 반공, 대결, 분렬, 전쟁준비를 공공연히 부르짖고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통일》의 체제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사실인즉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 것까지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류례없는 총칼의 탄압밑에 《유신헌법》이라는것을 만들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였을뿐아니라 《국회의원》까지도 그 3분의 1을 《대통령》의 어용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것이 지명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법》을 조작하여 《국회》마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대통령》 한사람만이 통일문제를 론의할수 있고 다른 광범한 정계인사들과 인민대중들은 평화통일론의를 입밖에도 낼수 없게 완전히 봉쇄하고말았으며 결국은 현집권자의 장기집권과 군사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와 대결태세를 강화하여나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은 우리와의 합작을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고서도 그것을 구

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것은 반대하여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에 대하여 《지금은 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여나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정치회담을 하면서도 정치, 군사 분야에서 합작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안에 대하여 한사코 반대하였으며 우리와 마주앉아 경제적합작과 문화적합작의 유익성을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적문제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제거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로서 우리가 제기한 남북간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제안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단계에서 쌍방간의 오해와 불신임을 풀고 호상 리해와 신임을 조성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를 제시하면 물러앉고맙니다. 이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고 아무런 실질적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할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언제 성숙되겠습니까.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민족자주적인 립장에 서있다면 우리가 그처럼 성의를 가지고 민족적 단합과 합작을 주장하며 남북간의 현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그처럼 공공연히 반대하며 《대화있는 대결》이니 《경쟁》이니 하는 말을 대치시켜나서지 못하였을것입니다.

그들이 남북공동성명에서 약속한대로 진짜로 외세에 의거하지 않으며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군이 그냥 남조선에 있어달라고 하며 군비경쟁을 계속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칠 하등의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은 조선에서 과연 누가 진짜로 통일을 원하고 민족을 위하며 누가 진짜로 나라를 팔고 동족상쟁을 꾀하는가, 누가 진짜로 평화를 주장하고 누가 진짜로 전쟁을 고취하는가 하는것을 남김없이 드러내놓았습니다.

구경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군사적지원과 부추김으로 하여 통일대신 분렬을 꾀하고 평화대신에 전쟁을 추구하며 민족적 단결과

합작대신에 대결과 경쟁을 고취하고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언제까지나 가지고있으려는 목적밑에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적극 방해하고있을뿐아니라 이른바 《다극화》된 세계에서의 《세력균형》을 운운하면서 조선의 분렬을 영원히 고착시키고 두개 조선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책동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공모자로 적극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반동들은 미국의 책동에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서의 옛식민지지배권을 회복할것을 망상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우리와의 대결에로 부추기는 일변도정책을 의연히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에 근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허울좋은 《평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려 하며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고취하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고발하며 그들의 침략적죄행을 견결히 단죄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우리 인

민과 세계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군이 하루빨리 물러가야 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결정적으로 종식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미국당국자들이 세계의 면전에서 그처럼 내세우고있는《평화》와《평화적조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진행하고있는 이때에 마땅히 남조선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중지하고 군비확장을 그만두며 군대를 철수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도 미국은《유엔결의》에 빙자하여 미국군대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당국자들을 무력으로 부추겨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방해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은《유엔》의 사명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것입니다.

원래 미군의 남조선강점 그자체가 용납될수 없는 비법행위입니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미군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으나 그것으로써도 자기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울수는 없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는것은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에도 전적으로 위반됩니다.

더우기 미국은 우리가 《남침》할가봐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에 미군을 두고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거듭 천명하였을뿐아니라 남북공동성명서에서까지 쌍방이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대하여 공약한만큼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남조선에 남아 경찰의 역할을 놀아야 할 리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유엔결의》에 빙자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게 되며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유엔에서 통과시킨 조선에 관한 《결의》가 현실적으로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척시키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줄따름입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는 평화통일을 반대할 목적으로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을

2중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비롯하여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대학들을 페쇄하고 언론기관들을 총검으로 통제하는 류례없이 극악한 군사파쑈폭압의 환경속에서 이른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놀음을 벌려놓았는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상례에 따라 또다시 이것을 가리켜 《자유로운 민주주의선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또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며 모든 민족이 자주, 자립하는 력사적전환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제국주의렬강들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자신이 결정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군대와 무기와 《닉슨주의》를

모두 걷어가지고 남조선과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물러가야 하며 아세아나라들의 문제는 매개 나라 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거의 30년동안이나 끌어온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수 없으며 더 이상 이를 그대로 지속시킬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 민족적불행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민족의 수치로 될것이며 력사와 후대들에 대한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통일위업을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모든 인민

들과 각 당, 각 파, 각계 인사들이 거족적으로 떨쳐일어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를 물리쳐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도 정책개변을 하고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에서 새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민족자체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어 하루빨리 남북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목과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열어놓은 대화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자는 립장이며 대화의 열매가 훌륭하게 맺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힘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제의한바와 같이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의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자는것을 다시금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둘째, 우리 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셋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넷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제기한 우리의 5개항목제안에 합의하고 하루빨리 해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이하로 줄이겠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새로이 천명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정말로 우리와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대화있는 대결》이니 《경쟁》이니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대화있는 단결과 합작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의 부추김을 받아 우리와 대결하려는 립장에 선다면 쌍방의 대화

에서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을것입니다.

《대결》이란 말그대로 서로 겨루고 승패를 가름한다는것인데 남북이 서로 방대한 무력을 쥐고앉아서 승패를 겨루게 된다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터질것이 없을것입니다.

싸움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을 좋아할것은 오직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매국세력뿐일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 공동성명에 서명은 하였으나 의연히 우리를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합작제의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제의도 모두 신임의 분위기가 조성되기전에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통일문제해결을 무한정 끌자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시기상조》니 뭐니하면서 지연전술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우리 민족이 남조선당국자들이 늘 말하듯이 통일을 아직도 10년 또는 100년이상이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남북당사자들이 결심만 한다면 래일이라도 또는 몇달안으로라도 통일을 할수 있다고 확신하며 또 그것을 주장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에서 지금 문제는 의연히 신

임이냐 불신임이냐 이렇게 제기되고있는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언제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취하여왔으며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주동적으로 평화통일원칙을 제기하고 서로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던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결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을것이며 《남침》할 의도를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도 우리와 같은 정정당당한 민족적인 대국적견지에 서서 대결, 반공, 군비경쟁, 전쟁준비를 그만두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힘써야 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릇된 립장을 고집하고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의 간판을 리용하여 사회여론을 우롱하며 계속 《대화있는 대결》을 고창하고 《속전속결》을 부르짖으며 분렬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커다란 증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킬것이며 인민

들은 결코 그것을 보고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력량이 다 참여하여야 할 거족적인 사업이며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입니다.

전민족적인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동위업을 추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광범히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며 통일문제해결에서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있는 남북조절위원회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대화의 폭을 넓혀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사이의 광범한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또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인민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자유로운 평화통일운동을 가로막고 공산주의와의 어떠한 련계와 접촉도 《범죄시》하는 분렬주의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모

든 법률들이 철페되여야 하며 누구나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론의하고 행동할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조선인민이 이르는곳마다에서 평화통일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한결같이 일떠서 거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간다면 우리는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성취해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모든 민족주체적인 력량을 발동하여 조국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내보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가로막음으로써 모든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당국자들도 변화된 정세하에서 지난날의 정책을 개변하고 남조선에서 그의 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정말로 조선문제가 평화적

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념원한다면 무엇때문에 이이상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두어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우리와의 군사적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남조선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입하고 그곳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군사연습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모든 전쟁준비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며 평화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이 《유엔결의》에 의하여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정당화하고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선문제에 관한 지난날의 《유엔결의》가 현실적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진행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지장을 주고있는만큼 유엔이 이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지난날의 잘못된 《결의》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유엔이 조선문제에 관여한지도 벌써 26년이 됩니다.

이 오랜 기간 조선의 분렬이 지속되고있다는것은 정치적으로 보나 인도적견지에서 보나

유엔의 권위로 보나 어느모로 보아도 더이상 허용될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정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론의될 때에는 우리 공화국대표가 반드시 참가하여 마음대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며 그것을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들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두해씩이나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 그렇게 하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상태가 세해씩이나 다시 되풀이되여서는 안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참가하고있는 나라들도 언제까지나 거기에 남아있지 말것을 희망합니다. 칠레와 파키스탄은 이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는 과감하고 정당한 행동을 취하였습

니다. 남아있는 나라들도 이 전례를 따라 탈퇴하든지 또는 그《위원단》의 사업을 무시함으로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자체로 해체되게 하든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되게 하여 조선의 평화적통일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해방투쟁인 동시에 국제적인 반제반미투쟁의 중요한 한개 고리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확신할수 있게 하며 우리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

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조선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면서 이에 보다 큰 주목을 돌리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바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긴장완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각국의 국회들과 정부들과 인민들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며 조선인민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줄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반드시 토의되게 하며 조선에 대하여 정당한 방침이 취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줄것을 바라는바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바야흐로 새로운 력사적전환점에 처하여있습니다.

우리앞에는 아직도 적지않은 난관이 있으나 우리는 지금 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 어떠한 힘도 민족적대단결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여나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돌려세울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며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장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며 온 겨레가 통일독립되고 번영하는 조국에서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은 멀지않아 오고야말것입니다.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2차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이 편지를 보낸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전반적국제정세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에 보다 유리하게 급격히 전변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남조선의 현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아무때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새롭게 천명하신 이후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평화통일방침은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때까지 북과 남사이의 접촉을 극력 반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들도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1971년 9월에는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열리게 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민족공동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27년동안이나 격페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접촉과 대화의 결실을 시대적추세와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는 커다란 사변으로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있는 대화를 통일을 위한 대화로, 단결을 위한 대화로 발전시켜나갈것을 념원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리행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남조선측에 제의하였다.

특히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것이 남북사이에 쌓인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담보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군대를 각

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해외로부터 무기와 전쟁물자를 들여오지 않으며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의 이 모든 제안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여온 조국통일방침을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의사와 평화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제의들은 미국이 남조선을 의연히 강점하고 자기의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을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기며 대화의 진척을 방해하고있기때문에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닉슨주의》에 따라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하려 하며 《두개 조선》을 만들어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

었다.

미국정부당국자들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비록 대화가 진행되고있다 하더라도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측이 대화에서 《보다 강력한 립장》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방위공약》의 리행과 《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추진시킬데 대하여 거듭 담보하고 각종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제공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전쟁준비를 강화하는데로 추동하고있다.

요즘에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도발적군사연습을 남조선군대와 함께 대대적으로 벌리며 군사정찰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남침》위협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부터의 북침위협이 조선에서의 현실적전쟁위험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방해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나 돌아가서는 그것을 위반하고있으며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우리의 현실적방안들을 《시기

상조》라고 하며 거부하고있다.

그들은 지연전술을 쓰면서 대화를 오직 전쟁준비와 자기들의 통치체제강화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이 아니라 미국당국자들이 말하는 대결과 경쟁을 고창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이 아니라 전쟁과 분렬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신식민주의적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자기들의 행동을 《유엔의결의》에 빙자하여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한 가운데 총검의 위협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실시한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 하여금 《공정한 민주주의선거》라고 비호하게 하였다.

미국은 또한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정책수행에 일본반동세력을 끌어넣고있다.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종식시키기전에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더 전진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오늘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적극 힘써줄것을 제기하는바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여야 한다.

사실 오늘 미국군대는 남조선에 더이상 머물러있을 어떠한 구실도 없다.

원래 미군의 남조선강점 그자체가 비법적이며 그들이 오늘까지 남조선에 머물러있다는것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에도 전적으로 위반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다.

미국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두고있는것이 마치 《남침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인듯이 말하고있으나 《보호》라는것도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일

관하게 《남침》할 의도가 없다는것을 표명하였을뿐아니라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쌍방이 서로 싸우지 않을데 대하여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건에서 이러한 구실은 전혀 통할수 없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우리와의 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미국은 마땅히 남조선으로부터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남조선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입하고 그곳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군사연습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이하로 줄일 용의가 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들을 제거하자면 또한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유엔의 결의》들에 의거하여 정당화하려 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유엔이 이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조선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방침을 취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 와있

는 미군으로부터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며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참가하고있는 나라들도 칠레와 파키스탄이 보여준 정당하고 결단성있는 행동의 전례에 따라 이 《위원단》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무시함으로써 《위원단》이 자체로 해체되게 하든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가 제거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삼고있으며 지난 조선전쟁의 참전국이건 아니건 다같이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미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귀중히 여기고 잘 추진시키도록 하며 조국의 자주적평

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기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우리의 5개항목 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가하에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대화와 협상을 폭넓게 진행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이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큰 련대성을 표시하여줄것을 기대한다.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고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이 제거된다면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대화는 빨리 진척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동정과 지지를 보내주고있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의 국회와 정부와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귀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편지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해당한 긍정적조치들을 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3년 4월 6일

평 양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국회 상, 하 량원에 이 편지를 보낸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1971년 9월부터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가 시작되였다.

그후 쌍방사이의 고위급회담이 마련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이 합의된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이것은 오래동안 격페된 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다.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우리는 쌍방의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조치로서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외교 등 각 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할데 대하여 특히는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5개항목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온 민족의 념원에 맞는 우리의 이 평화애호적발기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에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다.

나타난 사실들은 이것이 주로는 조선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정부당국의 정책에 기인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정부당국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첫출발로부터 그에 찬물을 끼얹으며 방해하여왔다. 미국정부당국자들은 남북대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것이며 남조선군대의 《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시

킬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힘의 립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라고 추동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미국은 남조선에 최대의 군사《원조》를 주면서 현대적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끊임없이 군사적도발과 군사연습을 감행하는 등 전쟁준비를 다그쳤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더욱더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의 길로 부추기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정부의 이와 같은 립장과 태도는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이며 긴장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 시대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미국정부당국은 무엇때문에 조선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진행하며 조선사람끼리 평화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는 이 마당에 와서도 여기에 간섭하며 방해하는가.

만일 미국이 정말로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념원한다면 이 이상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두어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우리와의 군사적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없을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변화된 오늘의 정세하에서 자기의 정책을 개변하고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평화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한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지하고 무기와 군사장비의 공급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군비확장과 전쟁연습을 그만두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무력으로 지원하여 조선사람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정부당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면 조선에서 전쟁위험은 사라지고 조선인민은 어김없이 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며 평화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맞는다고 인정하면서 미국국회가 우리의 이 편지에 신중한 관심을 돌리고 해당한 긍정적대책을 강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3년 4월 6일

평 양

민족의 호소

발행소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소
인 쇄	1973년 4월 7일
발 행	1973년 4월 10일

ㄱ—550002 값 20전